

교수일반분과/교육B/04/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공감능력,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¹⁾

박정우 (광운대학교선교회 교목, 경희대 상담심리 박사과정)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유학생의 공감능력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규명하고, 공감능력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색하는 데 있고, 중국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역할과 그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분석하여, 중국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연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 간에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유학생의 학교생활만족과 공감능력이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공감능력이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유학생의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공감의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대상은 서울, 경기, 전주 지역 등 총 14개 학교에서 399명의 중국유학생이(4년제 대학교 언어교육원,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중국 유학생)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총 550명에게 설문지를 돌렸고, 이중에서 392명에게서 설문지를 회수 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표본의 가치가 있는 31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Sandhu & Asrabadi(1994)가 연구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을 변안한 이승중(1996)의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척도를 수정 보완한 황지인(2008)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 하였다. 학교생활만족도 측정문항은 김재은·이은순(1997)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본 연구에 알맞게 수정 보

1) 본 글은 박정우의 석사학위논문(2016년 1월 8일, 고려대학교)을 요약했음

완하여 식사과정 중국 유학생 5명에게 문항의 안면 타당도 검수를 거쳐 수치화가 부적절한 주관식 2문항을 제외한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공감능력척도는 1980년에 Davis가 개발한 공감측정도구인 IRI를 정혜선 교수가 번안하여 그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SPSS 21.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및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변인들과 각 하위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 3) 학교만족도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이 공감에 따라 조절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설과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만족, 문화적응스트레스, 공감능력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남자 중국인 유학생집단과 여자 중국인 유학생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간의 상관은 여자 중국인 유학생 집단은 정서적 공감을 많이 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 중국인 유학생 집단은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해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한다고 할 수 없다.

학교생활만족과 공감능력간의 상관에 있어서는 여자 중국인 유학생 집단은 인지적 공감을 많이 할수록 높은 학교생활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 중국인 유학생 집단은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해서 학교생활만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없다. 여자 중국인 유학생 집단에서만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에서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장면에서 적용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인 여자 유학생의 경우, 학교생활만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좀 더 구체화된 상담적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정서적 공감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적거나 증가하여도 항상 학교생활만족을 도와주므로, 초기 여자 유학생의 학교생활만족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선 정서적 공감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많아져 학교생활만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국인 여자 유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지적 공감을 증진시켜주는 개인 상담 혹은 집단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일 것일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적절한 상담기법 적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주요어 : 문화적응스트레스, 공감능력, 학교생활만족도, 중국유학생, 성별차이, 조절효과

제36회 기독교학문학회 발표논문 (19.10.26)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논문의 내용요약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유학생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이들의 한국 생활적응을 위한 이슈들 중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 공감의 역할이 그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역할과 그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분석하여, 중국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유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서 한국유학생들의 한국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2) 한국인들의 남녀의 대응방식을 대상으로 한 공감능력 변인에 대한 여자와 남자의 공감능력의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공감능력이 중국유학생의 성별로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3) 중국유학생들이 문화적응스트레스로 인해 겪게 되는 학교 만족도에 있어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II. 연구문제 및 가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공감능력,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해 살펴본 황지인(2008)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을 하고 있으며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 한 학생들이 이질문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즉 여성이 남성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체류기간, 한국어수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또한 성별, 연령, 체류기간, 한국어수준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유의미 하지 않았고, 한국어 능력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유의미 하였으며, 연령은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변인인 대학생활 만족도와는 유의미하였고,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은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변인인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생활 만족도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학기간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 수준에서 중국유학생들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이 길어질수록 학교생활만족 수준은 낮아지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과 공감능력을 연결시킨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나, 정혜선(2015)의 중국유학생의 우울증상에 관한 연구와 몇몇 연구에서 공감능력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현철(2010)의 공감능력의 연구를 살펴보면 공감능력이 포함된 감성지능이 높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과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과의 상관관계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학교생활만족 척도가 낮아지며, 남자보다 여자가 더욱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 공감능력에 대한 한국 대학생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으나,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희소한 실정이다. 정혜선의 연구(2015)에서 중국유학생의 우울 증상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공감능력 정도에 따라 느끼는 우울태도가 성별로 차이가 있다는 정도의 결과가 있을 것 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나 조절효과가 나올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의 정도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고자 조절효과 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정적결과에 대해서 공감능력이 조절효과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연구하고,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여성의 적응이 높은 경향을 갖는 성별 적응 성향이 공감능력의 관계에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유학생의 공감적응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규명하고, 공감능력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 간에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중국유학생의 학교생활만족과 공감능력이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3.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공감능력이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4. 중국유학생의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공감의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공감능력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 대상자를 서울, 경기, 전주 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14개 대학의 어학연수와 학부, 대학원의 중국인 유학생 314명을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각 대학교의 유학생지원부서(대외국제처 및 대외교류처)와 담당 교수 및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부탁하였다. 유학생 기숙사 및 수업시간, 연구실 등에서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고 수거하는 일대일 수거 형식으로 측정도의 신뢰도를 높였다. 측정도구는 2015년 10월 19일 인편, 우편으로 배포하였고, 2015년 11월 5일 전량 회수하였다. 총 550명에게 설문지를 돌렸고, 이중에서 314명에게서 신뢰할 만한 내용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중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한국어에 능숙한 5명의 유학생에게(학부생 2명과 석사과정 유학생 3명) 중국어로 번안하고 그 의미의 유의미성을 점검하여 신뢰도를 높였고, 광운대학교 학부과정 3명, 석사과정 2명에게 번역 및 내용의 안면타당도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소요시간은 15-20분 정도였고, 설문지 수거는 연구자와 설문 배포자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수거하였다.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314명(남자 111명, 여자 203명)의 자료가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최종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와 같이 21세에서 22세 사이의 응답자가 118명(37.6%)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136명(43.3%)가 한국 대학의 학부과정에 있으며, 100명(31.8%)는 한국에서 어학연수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 체류기간은 123명(39.2%)가 1년 미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이상 한국에 체류 중이라고 응답한 중국인 유학생은 79명(25.25%)이었다. 자취방에서 거주중이라고 응답한 중국인 유학생은 166명(52.9%), 기숙사에서 거주중이라고 응답한 중국인 유학생은 135명(43.0%)이었다. 한국인 친구는 1명~2명이 있다고 응답한 중국인 유학생은 120명(38.2%), 3명~5명은 81명(25.3%), 10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중국인 유학생은 73명(23.3%)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14)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별	남	111	35.4
	여	203	64.6
나이	20세 미만	34	10.8
	21세 ~ 22세	118	37.6
	23세 ~ 24세	78	24.8
	25세 이상	84	26.8
학습과정	어학연수	100	31.8
	학부	136	43.3
	대학원	78	24.8
한국체류기간	1년 미만	123	39.2
	1년 ~ 2년	62	19.7
	2년 ~ 3년	50	15.9
	3년 이상	79	25.2
거주형태	기숙사	135	43.0
	자취방	166	52.9
	친구나 친척 집	13	4.1
한국친구	1명 ~ 2명	120	38.2
	3명 ~ 5명	81	25.8
	5명 ~ 10명	40	12.7
	10명 이상	73	23.3
전체		314	100.0

연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응답한 중국인 유학생 중 232명(73.9%)이 “중”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등록금 조달은 239명(76.1%)가 가족이나 부모님이 지원해주신다고 응답하였고,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충당한다고 응답한 중국인 유학생은 32명(10.2%), 개인저축으로 조달한다고 응답한 중국인 유학생은 24명(7.6%)이었다. 생활비의 경우 166명(52.9%)가 40만원 이상이 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중국인 유학생은 205명(65.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 주에 2일 ~ 3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한 중국인 유학생은 45명(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N=314)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경제수준	상	21	6.7
	중	232	73.9
	하	61	19.4
등록금조달	개인 저축	24	7.6
	가족(부모님)	239	76.1
	장학금	32	10.2
	아르바이트	19	6.1
생활비	20만원 미만	23	7.3
	20만원 ~ 30만원	45	14.3
	30만원 ~ 40만원	80	25.5
	40만원 이상	166	52.9
아르바이트	주 6일 ~ 7일	21	6.7
	주 4일 ~ 5일	43	13.7
	주 2일 ~ 3일	45	14.3
	안 한다	205	65.3
전체		314	100.0

IV. 연구 결과

1. 학교생활만족도와 문화적응스트레스, 공감능력간의 관계

1) 학교생활만족도와 문화적응스트레스, 공감능력간의 관계 분석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된 학교생활만족, 문화적응스트레스,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감전체와 인지적 공감은($r=.854, p<.01$) 정적인 상관관계, 정서적 공감은($r=.833, p<.001$)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424, p<.001$). 가설 1,2,3의 검증을 위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 공감간의 상관을 다음과 같이 확인해보았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11, p<.001$). 즉,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은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중국유학생의 학교생활만족과 공감능력 전체,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공감능력 전체 $r=.014, p>.05$; 인지적 공감 $r=.104, p>.05$; 정서적 공감 $r=-.085, p>.05$). 즉, 중국유학생의 학교생활만족과 공감능력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공감능력 전체,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간의 상관관계 중 정서적 공감 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r=-.167, p<.01$)이 나타나,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공감능력이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은 부분 지지되었다.

2) 남자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학교생활만족,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간의 관계 분석

본 연구에 참가한 남자 중국유학생의 학교생활만족, 문화적응스트레스,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은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은 남자 중국인 유학생 집단에서 지지되었다. 중국유학생의 학교생활만족과 공감능력 간에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는 남자 중국인 유학생 집단에서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공감능력 간에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은 남자 중국인 유학생 집단에서는 기각되었다.

3) 여자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학교생활만족,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간의 관계 분석

본 연구에 참가한 여자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학교생활만족,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간의 상관관계는 남녀 집단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공감능력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여자 중국인 유학생 집단에서만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서적 공감간 관계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중국인 유학생 집단은 정서적 공감을 많이 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 중국인 유학생 집단은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한다고 할 수 없다.

학교생활만족과 공감능력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여자 중국인 유학생 집단에서만 학교생활만족과 인지적 공감 간 관계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중국인 유학생 집단은 인지적 공감을 많이 할수록 높은 학교생활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 중국인 유학생 집단은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해서 학교생활만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없다.

2.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조절효과 검증

1) 여자 집단에서의 정서적 공감 조절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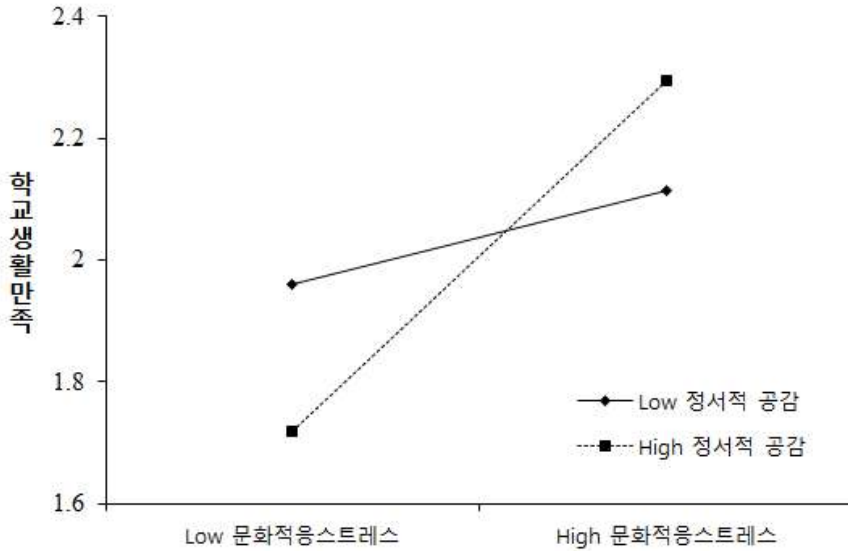
중국인 여학생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정서적 공감에 의해서 조절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서적 공감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중공선성 발생을 방지 위해서 각 변수는 평균중심화(mean-centering)하여 상호작용항을 생성한 후 다음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평균중심화한 문화적응스트레스, 정서적 공감을 독립변수에 투입하고 학교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에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서적 공감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중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학교생활 만족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서적 공감의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적 공감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정서적 공감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상.하로 구분하고, 조절변인인 정서적 공감도 그 정도에 따라 상.하 집단으로 나누어 회귀식을 유도하였다. 유도한 회귀선을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나타난 정서적 공감 정도에 따른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문화적

응스트레스의 두 회귀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macro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표 13>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회귀선의 기울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공감 정도에 따라 중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정도가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단순 회귀선 역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간의 정서적 공감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서적 공감을 많이 하는 중국인 여학생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적을 때는 정서적 공감을 적게 하는 학생보다 학교생활만족을 낮게 경험하지만,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학교생활만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공감을 낮게 하는 중국인 여학생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적을 때는 정서적 공감을 많이 하는 중국인 여학생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학교생활만족을 느끼지만,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면 정서적 공감을 많이 하는 중국인 여학생보다 오히려 학교생활 만족을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공감을 많이 하는 여학생의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을 때 보다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오히려 학교생활만족도가 정서적 공감이 낮은 여학생 집단보다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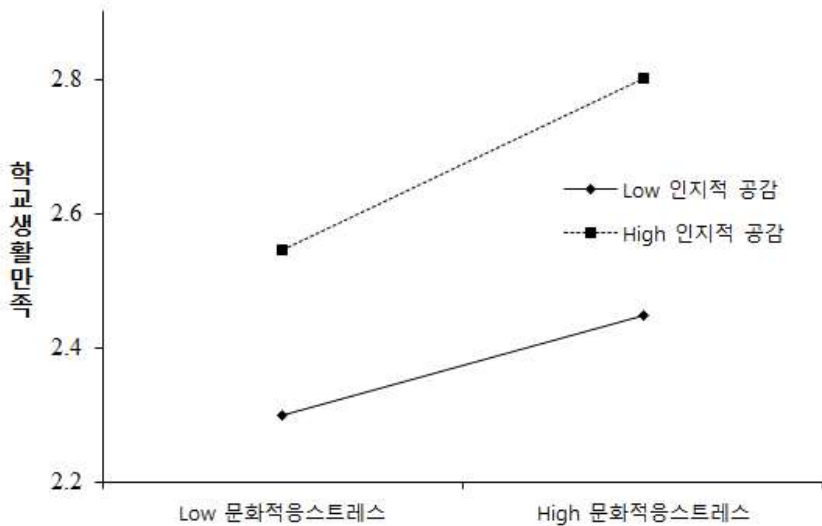
반면, 정서적 공감을 적게 하는 여학생은 정서적 공감을 많이 하는 여학생보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변화량에 대한 학교생활만족도의 변화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여자 집단에서의 인지적 공감 조절효과 검증

여자 중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인지적 공감에 의해서 조절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인지적 공감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여자 중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학교생활 만족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인지적 공감의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인지적 공감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상.하로 구분하고, 조절변인인 인지적 공감도 그 정도에 따라 상.하집단으로 나누어 회귀식을 유도하였다. 유도한 회귀선을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간의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

<그림 2>에서 나타난 인지적 공감 정도에 따른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두 회귀선이 통계적으로 다른지를 검증하는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을 위해 Hayes(2013)의 macro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들을 정리하여 보면, 여자 중국인 유학생은 인지적 공감의 상대적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학교생활만족도를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인지적 공감을 조절 변인으로 하여 인지적 공감을 많이 하는 집단과 낮게 하는 집단으로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면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이, 인지적 공감을 더 많이 하는 중국인 여학생일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질 때 인지적 공감을 적게 하는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학교생활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적 공감을 많이 하는 여자 중국인 유학생이 인지적 공감을 적게 하는 여학생보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증가정도에 따른 학교생활만족의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적 공감을 많이 하는 중국인 여학생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증가하면 학교생활만족을 오히려 더 크게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낮은 정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해서 인지적 공감을 많이 하는 여자 중국인 유학생이 더 높은 학교생활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높은 정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인지적 공감을 많이 하는 여자 중국인 유학생이 더 높은 학교생활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로부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동일한 정도로 증가할 때, 인지적 공감이 높은 여학생이 인지적 공감이 낮은 여학생보다 더 높은 학교생활만족의 증가율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자 중국인 유학생의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조절효과를 각각 살펴본 결과,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정서적 공감의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공감이 높은 여학생은 같은 수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에 대해서 정서적 공감이 낮은 여학생보다 더 낮은 학교만족도를 보였지만,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오히려 학교생활만족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공감의 경우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력에 있어서 인지적 공감이 많은 여자 중국인 여학생이 보다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3) 남자 집단에서의 정서적 공감 조절효과 검증

남자 중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정서적 공감에 의해서 조절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서적 공감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는 평균중심화한 문화적응스트레스, 정서적 공감을 독립변수에 투입하고 종속변수에 학교생활만족도를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서적 공감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남자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도 간에 정서적 공감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남자 집단에서의 인지적 공감 조절효과 검증

남자 중국인 유학생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인지적 공감에 의해서 조절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인지적 공감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는 평균중심화한 문화적응스트레스, 인지적 공감을 독립변수에 투입하고 종속변수에 학교생활만족도를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인지적 공감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남자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도 간에 인지적 공감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중국유학생의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공감의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조절효과는 중국 여자 유학생과 중국 남자 유학생으로 구분하여 성별에 따른 집단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모두 중국 여자 유학생 집단에서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 남자 유학생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가설 4는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과 논의

한국 내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기 전에 개별적인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동일한 설문지를 중국어로 번안하여 제작하고, 그 내용의 신뢰도를 위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사전 측정하여 내용 수정을 보완하여, 서울, 경기, 전주 지역 등 총 14개 학교에서 중국유학생에게 사용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설과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만족, 문화적응스트레스, 공감능력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남자 중국인 유학생집단과 여자 중국인 유학생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간의 상관은 여자 중국인 유학생 집단은 정서적 공감을 많이 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 중국인 유학생 집단은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해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한다고 할 수 없다.

학교생활만족과 공감능력간의 상관에 있어서는 여자 중국인 유학생 집단은 인지적 공감을 많이 할수록 높은 학교생활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 중국인 유학생 집단은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해서 학교생활만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없다. 여자 중국인 유학생 집단에서만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에서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여학생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에 의해서 조절된다. 정서적 공감을 많이 하는 여학생의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을 때 보다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오히려 학교생활만족도가 정서적 공감이 낮은 여학생 집단보다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공감을 적게 하는 여학생은 정서적 공감을 많이 하는 여학생보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변화량에 대한 학교생활만족도의 변화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인 남학생의 경우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정서적 공감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공감을 많이 하는 여자 중국인 유학생이 인지적 공감을 적게 하는 여학생보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증가정도에 따른 학교생활만족의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동일한 정도로 증가할 때, 인지적 공감이 높은 여학생이 인지적 공감이 낮은 여학생보다 더 높은 학교생활만족의 증가율을 보인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인 남학생의 경우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인지적 공감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중국인 유학생의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조절효과를 각각 살펴본 결과,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정서적 공감의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공감이 높은 여학생은 같은 수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에 대해서 정서적 공감이 낮은 여학생보다 더 낮은 학교만족도를 보였지만,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오히려 학교생활만족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공감의 경우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력에 있어서 인지적 공감이 많은 여자 중국인 여학생이 보다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살펴 본 연구에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각각 다른 역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있어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녀의 성 비율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표본의 성별 분포의 신뢰를 위해 지역별 대학교에 의뢰하고 표본을 구했으나, 결과적으로 남녀 1:2 비율의 표본으로 남녀의 성비율의 표본을 얻게 되었다.

둘째, 중국이 각 도시(城)마다 지역적인 고유한 문화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중국유학생 전체를 하나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 제한점이다. 중국은 유학생의 출신 도시의 유학생을 하나의 표본군으로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하겠다. 중국의 북방지역과 남방지역, 북서지역 마다 기질과 언어의 소통도 상이하다. 심지어 동북지역의 상하이와 남방의 광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 소통 자체도 다른 경우도 허다하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자가 표본 인터뷰를 위해 직접 만나 본 중국 유학생들의 출신 지역별(동부, 남부, 북서부)로 문화적 상이함의 극복을 위한 표본을 신뢰를 위한 언어적 통일성을 위해 각각의 출신 지역별 중국유학생들과 논의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각 城(지역)마다 존재하는 문화적, 언어적 상이함의 난감함에 공감하였다. 중국을 하나의 통합된 국가개념으로 접근하기에 어려운 점은 첫 번째로는 문화와 역사가 다르기에 통합적인 표본 산출의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언어의 소통 또는 의미의 내포함이 다르다. 세 번째, 중국에 존재하는 학교(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서열화 및 차별화 정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국내에서는 자치 도시(城)마다 1등급과 그 이하로 몇 단계 등급의 학교 순위가 정해져 있고, 각 학교마다 진학하는 어느 정도의 계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서 표본을 산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설문지의 번역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다. 본 연구의 공감능력 설문지를 번역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지역 출신으로 한국어에 능통한 유학생 5명(학부생 2명, 대학원생 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의 단어 하나마다 의미를 통일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명확한 연구결과를 위해서 중국의 각 지역마다 의미가 소통되는 번역본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남자유학생의 경우 문화충격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에서 공감능력(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었고, 여자 유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여자 유학생은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공감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수준이 많아지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적었을 때 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여 학교생활만족을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공감의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항상 학교생활만족을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장면에서 적용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인 여자 유학생의 경우, 학교생활만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좀 더 구체화된 상담적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정서적 공감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적거나 증가하여도 항상 학교생활만족을 도와주므로, 초기 여자 유학생의 학교생활만족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선 정서적 공감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많아져 학교생활만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국인 여자 유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지적 공감을 증진시켜주는 개인 상담 혹은 집단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일 것일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를 통해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국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ISI(International Student Incorporated)라는 단체는 외국인 유학생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여 미국의 음식문화를 알리며, 야외 활동을 하고, 가정 방문을 통하여 외로움을 달래줌으로써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영국의 ISCS(International Student Christian Services), 독일, 호주, 캐나다의 ISM(International student Ministry)등 이 있다 (엄혜경, 2004). 한국에서는 FOSKO(Foreign Students in Korea,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선교협의회)가 2006년부터 광운대학교 및 서울 전체 지역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훌륭히 돕고 있는 사례가 있다.

또한 대학기관 자체적으로 한국학생과 중국학생의 멘토링 프로그램과 문화이해증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공감능력과 대학구성원들과의 관계의 폭을 확대시켜 사회적지망을 넓혀주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 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개별 민족群으로의 접근이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얻는데 선행연구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각 대학마다 중국 유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공감능력을 높이는(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 공감능력의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가 희소하기에 비교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은 23개 성(城), 5개 자치구, 4개 직할시 2개 특별행정구(홍콩, 마카오)로 이루어진 많은 인종의 연합국가라고 할 수 있다. 단일국가로서의 접근 방식과 다수 민족으로서의 접근 방식에 대한 구별된 척도가 필요하다.

중국 현지에서 세대 간 급변화가 매년 진행되고 있는 유학생들의 현실 속에서, 유학생들의 문화적응과 학교생활만족도와 공감능력의 변화는 매년마다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것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대간, 계층 간의 단절과 흡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인들의 남자와 여자의 기질적, 지역적, 세대별 상이한 문화群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대학마다 시기적절한 학업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 내의 일원으로 융화시키기 위해서 매년마다 지속적인 본 연구가 지속성을 유지하여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